



2021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박재한 한인회장 연임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87**
2021/12

회 歸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약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1.09% ‘찜뚱’ 인상에 노동자 시위 확산 팬데믹 전 연간 8%대 인상... 새로운 산출법으로 급증 제동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2년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09%에 그치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평균 1.09%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주, 시·군별로



▲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

최저임금이 다르며 노동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후 지자체장이 확정 발표한다.

가장 높은 곳은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이다.

내년도 자카르타 수도권의 월 최저임금은 445만3천935 루피아(37만원)로, 올해 대비 0.85% 인상된다.

중부 자바는 181만2천935 루피아(15만원)로 0.78% 인상되며,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다.

당국은 남수마트라, 북술라웨



▲ 작년 11월 옴니버스법에 반대하는 인니 노동자들 시위

시, 남술라웨시, 서술라웨시 등 4개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상한선을 넘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결정했다.

작년까지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합산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 등 가파르게 올랐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부가 동결을 결정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자 고용 유연화 등을 위한 노동법 등 70여 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작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평균 가계 소비를 반영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산출한 결과 평균 1.09% 인상이 결정되자, 노동자들은 10%는 올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총(KSBSI)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등은 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 단위별로 항의 시위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다음달 6~8일 사흘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2021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박재한 한인회장 연임



소시키는 일이 한인회가 나서야 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했다”며 “많은 한인이 다각도로 한인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림으로 한인회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며 한인회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함께 힘이 되어 준 이 사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2부 순서로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이어졌다.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임후보자 기조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25명 가운데 9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박재한 후보가 58표, 이진수 후보가 38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 한 박재한 한인회 회장이 차기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11월 26일, 리츠 칼튼 호텔(쿠닝안 소재)에서 한인회의 명예고문, 고문,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사회는 1부 국민의례와 한인회장 인사말, 2부 한인회장 선거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박재한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일상적 방역시대 도래로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해 만남이 소원했다”며 임원들을 반겼다.

“해외 동포로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사이의 사각지대에 갇히게 되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고 국가에 의해 안전망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의존할만한 공동체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 불안감을 해

박재한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신뢰와 의지가 되는 한인들의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절실했던 한인전담 의료 시스템을 구축과 인도네시아 속의 한인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연임이니만큼 중요한 한인사회 관련 사안들을 연속성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한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경력이고 그 축적된 데이터로 속도를 붙여 정비해 나아간다면 차기 한인회는 낭비없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위해 출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위기에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나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할 것”과 “단단하지만 유연한 자세로 여러분과 한인회와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2022.01.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까지
by January 0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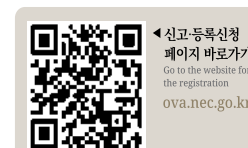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재무부, 세금우대 조치로 예산 초과 시 추가배정



▲ 2020년 3월 10일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장관(왼쪽)과 수아하실 나자라 차관(오른쪽)이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자영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Courtesy of the Taxation Directorate General/-)

재무부는 국가경제회복가 1년 전체 세제 혜택 예산의 (PEN) 예산의 수요가 예산을 초과하자 세제 혜택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은 경제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정부

신청이 많아지면서 추가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소형차 판매에 대한 한시적 사치세 감면, 신규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법인소득세 인하, 특정 업종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세제 혜택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기업과 고용인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아하실 차관은 웹세미나에서 청중들에게 소비수요가 100%를 초과 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배정할 것이라면서 정확히 얼마나 추가 될 것인지는 12월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인도네시아

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2020년 초 대유행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당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최근의 평가에서 57.2점을 기록하여 올해 초의 기록을 갱신했다.

중앙은행 소매업 지수는 10월 1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성장해 델타 변종으로 인한 감염이 극적으로 급증한 8월 연간 2.2%의 하락에서 반등하였다.

재무부는 PEN 예산에 배정된 744조7700억 루피아 중 707조2700억 루피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말까지 전체 PEN 예산 재원의 대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아하실 차관은 올해 말까지 PEN 예산의 집행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아하실 차관은 지난 금요일 현재 전체 예산의 66.6%인 495조7700억 루피아를 집행하였지만 연말 지출이 빨라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무부는 7월과 8월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병원비 청구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어 보건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회복지자금 지출도 올해 마지막 두 달간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 장관은 지난 목요일 694 가구에 대한 주민 현금지원과 140만 수혜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30만 루피아의 복지 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수요일 정부가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1인당 60만 루피아를 3차례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부처들을 통해 지출된 PEN 자금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장 집행이 뒤쳐진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지원 예산 지출은 81조8300억 루피아로 배정 예산의 50.4%가 집행되었으나, 소액대출 보조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또한 예산 집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델타 변이 감염” 전염병학자 주장

인도네시아 인구 5명 중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단 면역’ 양상이지만 3차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23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욕야카르타(족자)특별자치주(州) 가자마다대(UGM·우게엠)의 전염병학자 치트라 인드리아니 교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7,020만 명이 걸 감안하면 2억1,6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얘기다. 치트라 교수는 지난 3~4개월동안 인

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5월부터 델타 변이 전파로 인한 ‘2차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나들 정도로 급증했으나 이달 들어 500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전날에는 186명이 집계됐을 정도로 하락세다. 치트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의 50% 이상이 무증상이었다”며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개인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치트라 교수는 ‘3차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



을 무력화할 새로운 변이가 퍼지면 다시 코로나19 발병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트라 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못했고, 두 차례 확산이 명절 등 대규모 이동 뒤에 나타났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 프

그램을 가속화하고, 연말연시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리스마스이브를 휴일에서 제외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거의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 비즈니스컨설턴스 베인앤코가 발표한 2021년 동남아시아 e-코노미(e-Conomy SEA 2021) 보고서는 상품총액(Gross Merchandise Value, GMV)으로 측정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가 올해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470억 달러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18%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성장세가 가속화됐고,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경제 복원력이 강력하다고 랜디 유수(Randy Jusuf) 구글 인도네시아 총괄 이사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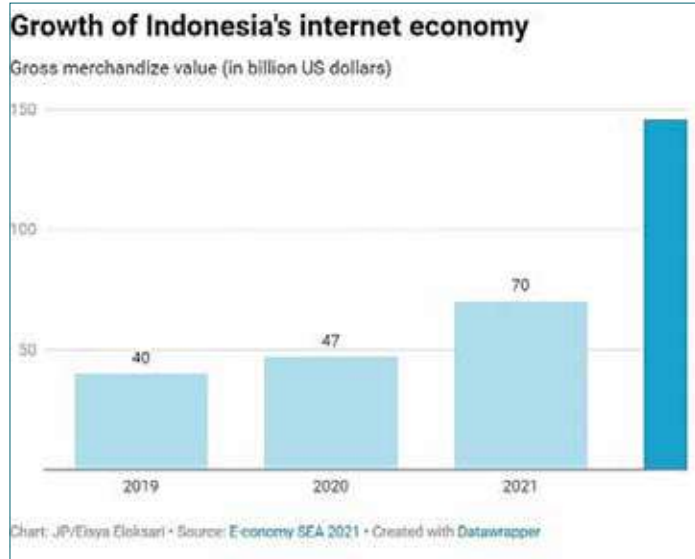
올해 전자상거래 부문은 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4대 부문 시장 중 최대 부문의 위치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미디어 부문, 온라인 여행 및 운송 부문, 온라인 음식 부문 등 분야는 GMV 기준으로 몇 십억 대에 불과하다.

다만 랜디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성장은 사용자 측면에서 높은 기준점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2025년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전체 디지털 경제는 1,46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2021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700억 달러 달성



상거래는 2025년까지 90억~1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부문으로 크게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랜디는 소비자 온라인 가맹점 모두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개방성과 의지, 신뢰가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대유행 기간 동안 2,100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새로운 사용자가 되었으며, 대유행 이후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고, 국내 온라인 상인들 또한 앞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더 많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랜디는 덧붙였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8월 현재 1,530만 개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e-Conomy SEA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28%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유행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수치

는 다른 5개 아세안 국가들보다 낮은데,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전염병 억제 조치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관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마섹의 폭와이훙(Fock Wai Hoong) 상무는 지난 금요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아시아에서 거대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보험, 자산 관리, 전자지갑, 후불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총체적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교육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격의료로 더 자주 사용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서, 교육기술(edutech)과 의료기술(health-tech)이 디지털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Fock 상무는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술(health-tech)이 진단부터 처방약 전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되겠지만 교육기술(edutech) 서비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고령의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1,740억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경제에 40% 안팎의 기여할 것이며, 이 지역의 인터넷 경제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이며,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전체 인터넷 경제는 2025년까지 3,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e-Conomy SEA 2020 보고서에 전망되었던 3,100억 달러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발리에 대사관 분관이 생겼다 외교부 “발리 방문 한국인 안전 권익 보호 강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에 신설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발리분관이 26일 개관식을 갖는다.

외교부는 25일 “인도네시아 발리 주에 위치한 주발리분관이 26일 주인도네시아대사, 발리 주정부 인사, 발리 한인회, 외교단 등 참석하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발리 및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주발리분관 신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분



▲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관 업무는 올해 3월 개시했으나, 현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관식을 연기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중 발리 방문객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2015년 14만8000명

수준이던 발리 한국인 관광객은 2019년 21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외교부는 “주발리분관의 금번 개관식 개최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 앞으로 발리 및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번 시공으로 오래 사용하는
에폭시 바닥 코팅시공
최상의 선택

PT. Dwi Mitra Anugrah

☎ 021) 880 3515

0812 100 0055

🌐 kr.dema.co.id

✉ jslim@dema.co.id



운동화 한 켤레, 번갈아 신는 남매... 인도네시아 울렸다



▲ tukangrongsok___ 트위터

한 켤레뿐인 운동화를 교대로 나눠 신으며 학교를 다니는 인도네시아 한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현지 시각) 콤포스TV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주 바우바우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디아(11), 리즈키(9) 남매의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온 남동생인 리즈키가 누나인 나디아 앞에서 운동화를 벗는다. 그에 맞춰 나디아는 착용 중이던 슬리퍼를 벗은 뒤 리즈키가 신던 운동화로 바꿔 신는 모습이다. 사연은 이렇다.

아침 일찍 수업이 시작되는 동생이 등교할 때 먼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 수업이 좀 더 늦게 시작하는 누나는 슬리퍼를 신고 느지막이 학교에 간다. 누나는 남동생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남동생 수업이 끝나면 그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나가 신는다. 남매에게 주어진 운동화는 한 켤레 뿐이라, 수업 동안만이라도 모두 운동

화를 신고 있기 위해서 매일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남매의 어머니 마르디아나는 “솔직히 신발을 살 돈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부끄럽다”며 “영상을 보고 울었다”고 말했다. 마르디아나는 이따금씩 판매원으로 일하지만, 안정적인 고정 수입은 없다고 한다. 가난에도 남매의 애정은 누구보다 각별하다. 공개된 또다른 영상에는 남동생 리즈키가 누나의 양발에 운동화를 신겨주는 모습과 리즈키가 나디아의 머리를 묶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둘이 함께 학교에서 다정하게 점심을 먹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마르디아나는 “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우애했다”며 “지금까지도 함께 자고 같이 먹으며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 영상들로 남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 경찰서장은 지난 19일 남매에게 새 운동화 두 켤레를 선물했다. 각각의 운동화가 생긴 것이다. 학용품과 교복도 새로 마련해줬다. 선물을 받은 나디아는 경찰서장의 품에서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경찰서장은 “이것이 소셜미디어의 힘이다. 나디아와 리즈키 가족을 만난 적이 없지만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모든 주민들은 서로 도움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둔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어떤 국가고시

등용문이라기에 소림사 12대문을 거쳐야 하는 줄 알았다. 초중고 12년이나 12대문이기는 하다. 대학 4년이나 대학원까지를 계산하면 한 20년을 다녀야 하니 만 원짜리로 쌓아도 등록금이 키보다는 높지 않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시험의 연속이다.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시험지옥이고 학원이나 학교나 모의고사로 시험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여러 가지 자격 시험 중에 고등고시가 있었다. 지금은 폐지된 사법고시가 고시폐인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강력하고 고상한 등용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요즘은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이 많다.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골 면서기(9급)라도 하늘의 별따기다. 경쟁률이 100대1은 넘는다 하니 50명이 응시하는 고사장 2개에서 딱 한명만 합격한다고 생각해 보라! 기막힌 현실이다.

내가 군에 있을 때 한 법무관이 있었다. 고등고시(사법)를 합격해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인데 모든 시험에 한번도 2등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단번에 수석으로 붙으니 그분 보고 한마디 하라시면 “세상에는 시험이 제일 쉬워요!”라고 할 것 같다. 만인의 꿈인 대통령도 시험 쳐서 뽑는다면 그 사람이 응시해 보겠단다. 허허 참.

70년대의 일이다. 나는 자동차가 좋았다. 운전병과 친했다.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 운전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소위 감을 잡았다. 당시의 차는 모두가 수동이었으니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꾸어야 했다. 속도가 오르고 탄력이 붙어야 다음 기어로 바꿀 수 있었다. 여차하면 시동을 꺼주기도 했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떨어지면 또 기어를 낮추는 일. 두 발로 감을 잡는 것이 요령이었다. 80년대에 차를 사게 되어 면허증을 따야 했다. 문제집을 사서 틀린 문제만 몇 번을 더 본 뒤 단번에 붙었다. 코스 시험도 쉬웠다. 그런데 시험으로 뽑는다면 대통령도 욕심을 내던 그 어르신이 몇 번

을 떨어진 모양이다. 그리 보면 내가 단번에 국가고시(?)에 붙었으니 고등고시도 해 볼걸 그랬나 싶다.

그 후, 미국에 살게 되어 운전면허를 따야 했다. DMV(자동차관리과)에서 책자를 구해 단어를 찾아가며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도로교통법이나 운전 방식이 우리와 약간 달라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싶었다. 눈알만 굴러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해도 실기시험에 떨어진다는 경험담을 들었다. 단번에 붙어 오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갔는데 약간 긴장되었다. 나 혼자 시험을 친다. 한국처럼 특정시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론시험에 합격을 하니 자동차를 준비해 도로주행시험을 치러 오란다. 날을 잡고 별 걱정 없이 갔다. 코도 키도 큰 경찰관이 차를 둘러보고 각종 등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는 출발하잔다. 도로 주행이라면 충분한 운전경력이 있으니 별 걱정을 안했지만 앞 유리에 ‘고개를 돌려져!’ 하고 한글로 적어놓고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 세 번 이상을 기다리며 눈알이 아닌 고개를 돌렸다. 후진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조수석을 잡고 고개를 돌려서 보았다. 어색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요령이라니 그렇게 했다. 한 참을 가는데 뭐라고 지시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다. 아마 길 옆에 댄 차 사이에 주차해 보라는 말인 것 같았다. 그런 거냐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영어가 서투니 크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알미웠을 것이다. 10분 정도면 되더라는 주행시험을 30분은 넘게 했던 것 같다. 그 시험관이 이만하면 떨어졌으리라 생각했다는 느낌이다. 돌아와서 체크리스트에 감점을 집계한다. 60점 이하면 또 와야 한다. 두세 번을 점검하더니 합격이란다. 이걸 뭐지? 딱 60점이다. 100점을 받아 댄데, 60점이면 되는 것을! 이래봐도 나, 한 국과 미국에서 국가고시를 단번에 붙은 사람이다.



조기조

가의 중대사다. 또, 인생의 중대사다. 어떤 시험시간 중에는 비행기도 뜨지 말아야 하고 사이렌도 울리면 안 된다. 다행이도 수능한파는 피했다. 시험이 끝나면 붓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지는 학생들 때문에 긴장했던 일도 없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예년의 요란스런, 한국적인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후배들의 요란한 응원, 찰떡이나 엿을 붙이는 모습,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들, 올해는 볼 수 없어 그렇다고 해야 하나?

1년에 단 한번뿐인 이 시험은 문제가 많다. 그날의 일진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2번은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SAT처럼 학생의 사정 따라 원하는 때에 몇 번이라도 치게 하면 안 될까? 우리나라의 기술기반으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지난 수십 년간의 문제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시험을 보게 하면 된다. 소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것이다. 매년 새로 출제하고 출제위원을 오래도록 감금하듯 보안하는 일이나, 문제지를 인쇄하고 운송, 관리하는 것도 엄청나고 위험한 일이다. 이제는 바꾸자.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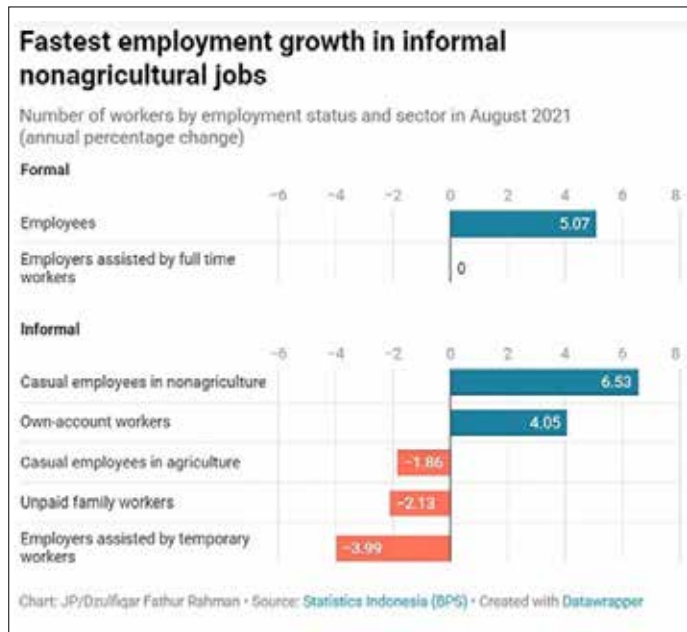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인니 비공식 고용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직원을 감원한 후, 재 고용하려는 가운데서도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편이다. 지난 11월 5일 통계청(BPS)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8월 비공식 근로자의 비율은 59.45%로 연초 대비 1.02%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시직 근로자와 무급 가족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정식 근로자의 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영업들이고, 다음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비정규 근로자들이며, 그 다음은 무급가족근로자, 농업 이외의 임시직 근로자, 농업의 임시직 근로자들이다. BPS 청장 마고 유워노는 보통 경제가 개선되면 공식적인 부문이 커진다고 11월 5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BPS는 6월 보고서에서 비공식 근로자들은 대개 사회보장, 법적 계약, 급여가 부족했

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비공식 고용의 큰 비율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며, 그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한다. 2020년 BPS 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육 이하를 받은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정규직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졸업자 중 약 10명 중 2명만이 비공식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s on Economics, 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전무이사는 초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공식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부문으로 들어간 이유라고 말했다. 2020년 BPS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10명 중 7명



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나 도시 지역에서도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공식적인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2020년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는 도시 고용률이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농촌 고용률은 66.9%로 0.2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BPS 자료에 나타났다. 8월의 BPS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의 가장 큰 부분은 농업이며 국가 총노동력의 28.3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 농업 노동자의 43.58%가 비공식적으

로 고용되었다. 비공식 부문의 고용의 높은 비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세입 징수 및 국민 건강 보험에도 문제가 된다. 파이살은 11월 5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유행 이전에도 제조업이나 농업보다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고용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됐고, 공식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BP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비스 부문 전체 근로자 중 40.62%가 정식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PS 자료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근로자 비율이 2020년에 50.62%로 전년대비 11.38%포인트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들은 대유행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BPS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비공식 노동자의 비율은 거의 3분의 2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57.29%였다. 국영 만다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은 비공식 고용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특히 대유행 기간 동안 프리랜서의 증가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파이살 이코노미스트는 11월 5일 포스트지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유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식 일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연한 근무시간을 가진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직업도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직장인 연말 휴가금지” ... 인도네시아의 초강력 방역책



지난 여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가 연말 근로자의 휴가를 막는 등 고강도의 사전 대응책을 내놨다. 자카르타 포스트와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될 이 규제책에 따르면, 이 기간 문화·예술·스포츠 행사는 금지되고 12월31일과 1월1일에는 모든 광장이 폐쇄된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과 국영·민영기업 직원들의 휴가가 금

지된다.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공무원과 국영업체 직원만 620만명 가량이라고 전했다. 그 밖의 공공 활동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3단계’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식당, 카페 등은 50%만 개방된다. 정부의 새 조치는 연말을 즐기거나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2억76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하루 5만명 정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300명대로 통제가 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겨울인 연말연시에 이동 인구가 급증해 바이러스가 재확산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NHK는 26일 관련 기사를 통해 “휴가 사용은 권리다” 등 인도네시아 내에 반발 목소리가 커진다고 전했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인니 정부, 항만마피아 근절 위해 감시, 단속 강화할 것



▲ 자카르타북부 항만 (사진= ANTARA Photo/Indrianto Eko Suwarso)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 (Sanitiar Burhanuddin) 검찰총장은 북부 수마트라 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만 마피아들을 척결하기 위해 즉각 첩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항구를 가진 각 지역지방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14일(일) 검찰청 공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만약 공무원이 항만 마피아를 돕거나 연루된 징후가 보일 경우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항만 마피아가 물류비용 상승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사업과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 관련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우선 국내의 사업가들의 투자의

욕을 저하시키고 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일자리 감소와 시민들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항만물류비용 대비 중국은 15% 말레이시아는 13% 수준으로 인도네시아는 해당 부문에서 사실상 완전히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항만 물류비용이 턱없이 비싼 것은 항만의 선적, 하역 시스템이 아직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와 함께 항만 마피아들의 발호(跋扈)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검찰청이 항만 마피아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강경하게 단속하도록 정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항만 마피아 척결 요청에 부응해 항만이 포함된 지역 관할 지방검찰청들이 즉시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루훗 빈사르 반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부패척결위원회(KPK), 경찰청,

검찰청이 해양투자조정부와 함께 항만에서 비슷한 수속과 서비스가 중첩되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항만 비리에 대한 공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먼저 반응을 보여 12일(금) 경찰청 범죄수사국장 아구스 안드리안토(Agus Andrianto) 치안장관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내려보낼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패근절 국가전략팀(Tim-Stranas PK)과 해양투자조정부가 실시한 현장조사결과 작성된 보고서는 항만마다 이나포르넷(Inaportnet)시스템이라 불리는 선박 및 화물서비스 표준정보 시스템과 KSOP(항만관리당국사무소) 및 별도의 선박화물서비스 등 복수의 시스템들이 가동되며 충돌이 일어나 선적 및 하역 절차와 서비스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타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 인도네시아 등 요소수 생산국에 수급 협력 요청 '산업·에너지 ODA 네트워크 데이' 개최...ODA 추진방향 제시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요소수 수입 대체선 발굴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국제개발협력(ODA) 네트워크 데이' 행사에서 요소수 수입 지체 조기 해결과 수입 대체선 발굴을 위해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등 요소수 생산국에 협력을 부탁했다. ODA 국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너지 ODA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27개국의 주한 외국 대사와 ODA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에너지 ODA와 관련해 이 같은 대규모 대사 간담회 및 홍보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



▲ 요소수 구매 성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상생의 ODA 추진 ▲ 디지털 ODA 확대 ▲ 그린·기후변화 대응 ODA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산업부 ODA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상생의 ODA 추진'은 개도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도 지원해 상호 '윈윈' 성과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ODA 확대'는 우리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심화하는 디지털 불평등 해소와 개도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린·기후변화 대응 ODA 확대'는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행사에서는 그간 추진한 산업·에너지 ODA 사업 실적 소개와 함께 ODA 관련 건의와 답변을 듣고 협력 필요사항을 협의하는 주한대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의 정례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니 현재, '노동권 침해 논란' 일자리 창출법 2년 내 개정 명령



인도네시아의 투자 촉진·고용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년 내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들이 낸 일자리 창출법 위헌 소송

에서 2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히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해 논란을 빚어온 관련 법률은 일정부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일자리 창출법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유효하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2년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했고, 어떤 조항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코 위도도 정부의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격렬히 반발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대였지만,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산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에 그쳤다. [연합뉴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현대차를 구입하는 '더 쉬운 금융'
신한이 함께 합니다

Q: 매월 **할부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A: 차량 가격의 50%는 만기시 납부하는 **유예 할부**가 있습니다.

Q: **선수금**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A: 특별 선수금 조건에 맞으면 **차량가격의 10%**만 납부해도 구입 가능합니다

Q: **한국분**과 상담하고 싶어요.

A: 카카오톡에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조회 후 친구등록하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후면 참고 바랍니다.



Call Center
1500881
Shinhan Bank

www.shinhan.co.id

Bank Shinhan Indonesia terdaftar dan diawasi oleh Otoritas Jasa Keuangan (OJK)

Bank Shinhan Indonesia merupakan peserta Penjaminan LPS



■ 상품 구조

A. 유예 할부: 차량가격의 50%(유예금)는 대출 만기시 일시 상환 가능하여 매월 분할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출 구조: 차량 구입가격 20% 납입 + 30% 월 분할 상환 (3년) + 50% 만기 일시 상환*

* 만기 시 유예금 상환 방법:

- ① 자기자금으로 상환 후 차량 계속 사용
- ② 2년 분할 상환(대출 심사 후 할부 기간 연장)
- ③ 차량 직접 매각 후 상환 (은행과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B. 특별선수금 할부: 구입 시 차량 가격의 10%만 납부하여 초기 차량 구입 비용이 저렴합니다!

> 대출 구조: 차량 구입가격 10% 납입 + 90% 월 분할 상환 (최장 5년)

■ 금리 및 수수료

> 금리*: 대출 기간에 따라 7% ~ 8% 금리 적용

* 현지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Flat 금리가 아닌 실제 effective 금리 기준(한국과 계산방법 동일)입니다.

> 수수료: 취급 수수료 1~1.5%, admin 수수료 2.5~4백만 IDR

■ 차량 가격(3억 IDR 가정)에 따른 초입금 및 월납부 금액 예시

구분	대출 기간	차량 선수금	수수료	보험료	월납부금액	만기상환금액
A. 유예할부	3년 (36회납)	60,000,000	4,900,000	16,574,000	3,738,000	150,000,000
B. 특별 선수금 할부	5년 (60회납)	30,000,000	6,550,000	25,588,000	5,439,000	-

■ 대출 조건

> KITAS, KITAP 보유 고객 대상입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 (동일 회사인 경우 한국 근무기간 포함)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 특별 선수금 할부는 재직기간 2년이상, 월 소득 40백만 IDR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월 소득(인도네시아 내 발생소득 限)과 기존 및 동 대출 원리금 납부금액을 고려한 DTI (Debt to Income)가 적용되며, KCB(한신뱅크), SLIK(인도네시아 신용정보) 신용 정보 조회 결과도 반영됩니다.

>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필요합니다. (Comprehensive)

[기타 안내 사항]

> 21년 11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금융 상황 및 실제 취급 시점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접속시 상세한 차량 및 대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 만기 전 총도 상환 시 총도 상환 수수료 2% (대출 잔여금액 기준) 부과됩니다.

> 카카오톡에서 "신한인도네시아" 조회 후 친구 등록하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유예할부는 최장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Call Center
1500881
Shinhan Bank

www.shinhan.co.id

Bank Shinhan Indonesia terdaftar dan diawasi oleh Otoritas Jasa Keuangan (OJK)

Bank Shinhan Indonesia merupakan peserta Penjaminan LPS

아디다스 이지 500
'클레이 브라운' 출시



아디다스가 이지(Yeezy) 라인 신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이지 부스트 350 V2 "MX 오트" (Yeezy Boost 350 V2 "MX Oat")를 출시한 데 이어 연이어 이지 500 "클레이 브라운(Clay Brown)"도 선보였다.

카네이 웨스트가 디자인한 이 라이프스타일 슈즈는 메쉬 소재 어퍼에 전체적으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으며 프리미엄 스웨이드 오버레이 패널과 슈레이스로 장식했다.

신발 표면에 이지 브랜딩은 없지만, 안창에 "이지(Yeezy)" 텍스트가, 뒤축에는 아디다스 트레포일 로고가 새겨 있다. 그리고 중창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그레이 컬러의 아디프렌+(adiPrene+) 쿠셔닝을, 밑창은 접지력 기능이 있는 브라운 컬러 고무 소재를 사용했다.

아디다스 이지 500 "클레이 브라운"은 성인 사이즈로만 출시됐으며 가격은 200달러선이다. 또한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아디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11월에 공개될 "유틸리티 블랙(Utility Black)"을 포함해 조만간 더 많은 이지 500 디자인이 출시될 예정이다.



PT. TOILON INSU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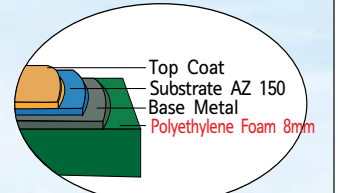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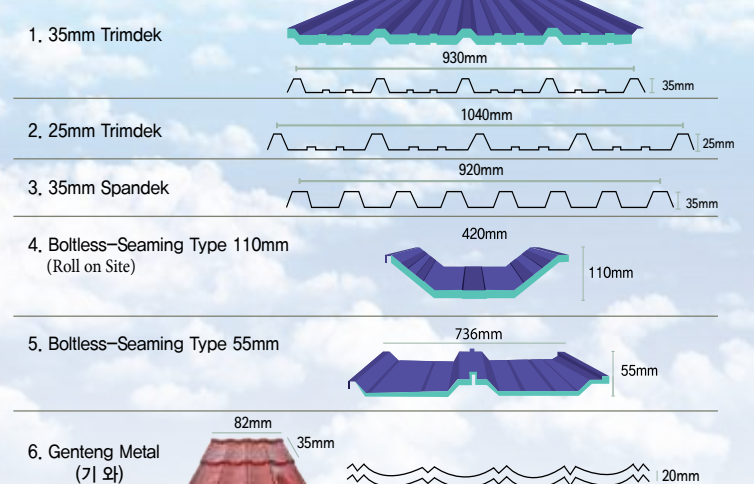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경남 자카르타사무소, 제 2회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콘테스트 성황리에 마쳐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심인 인도네시아 내 경남홍보를 위해 “제2회 PESONA GYEONGNAM(경남의 매력), 경남은 상상 그 이상, 제2회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약 69명 정도 참여했으며 이중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입선 6명 등 총 10명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제2회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콘테스트”의 주제는 “PESONA GYEONGNAM(경남의 매력), 경남은 상상 그 이상”였으며 인도네시아인으로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작품 제출을 통한 경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네티즌(인스타)의 호응도 50점,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평가 50점 등 총 100점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금번 “제2회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콘테스트”를 통해 경상남도, 코리아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



▲ “제2회 PESONA GYEONGNAM(경남의 매력), 경남은 상상 그 이상, 제2회 경남관광 홍보 비디오 콘테스트” 대상 Apri Diyana/Jakarta 작품 (사진=경남 자카르타 사무소 제공)

었던 좋은 기회였었다. 2020년 11월 최초 개최된 제1회 경남관광 홍보의 주제는 ‘사진 콘테스트’였고, 금년에는 활동성과 생동감을 강조한 ‘비디오 콘테스트’로 설정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는 앞으로도 매년 작품에 맞는 주제를 설정 콘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출품된 작품들은 경남도 자카르타사무소 및 재인니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

원 등의 인스타그램과 연계해 대 인도네시아 경남관광 홍보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금년 수상자 10명은 재인니 경남도민회 및 경남 자카르타사무소 홍보대사로 임명 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좋은 의견 제재 및 우수활동 시 평가를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상품권 등) 경남관광 홍보와 인도네시아 경남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자카르타(Jakarta) 거주 Apri Diyana씨는 “평소 경남에 관심 많았는데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로 기쁘고 앞으로 경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경남의 관광, 문화, 토속음식 등 경남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업체(POWER TECH)를 경영하고 있는 재인니 경남도민회 전민식 부회장은 “금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인해 다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

로도 경남 자카르타사무소와 재인니 경남도민회가 더 협력하며 경남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놀라운

LED등의 모든것 비교할 수 없는 가격!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Telp :021-8935075 / 77
021-89842162
Fax. 021-8937739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 형광등	LED Streetlight 50W - 보안등
<p>Price Rp. 55.000</p> <p>LED CHIP : SAMSUNG Warranty : 3 Years CCT : 6500K INPUT POWER : TWE WAY(2SIS)/양방향</p>	<p>Price Rp. 350.000</p> <p>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1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p>
LED Highbay 100W - 공장등	LED Streetlight 100W - 가로등
<p>Price Rp. 1.110.000</p> <p>Warranty : 3 Years Waterproof Class : IP65 PF : 0.95 CCT : 6500K</p>	<p>Price Rp. 650.000</p> <p>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2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p>
LED Highbay 150W - 공장등	LED Streetlight 150W - 가로등
<p>Price Rp. 1.400.000</p> <p>Warranty : 3 Years Waterproof Class : IP65 PF : 0.95 CCT : 6500K</p>	<p>Price Rp. 1.100.000</p> <p>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3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p>

Ex PPN / Jabotabek Price / Promo before Lebaran 2021

중국의 아세안 승부수 ... 동남아서 일대일로-B3W 격전 예고

중국, 미국 포위 출구로 동남아 지목...지원패키지 풀고 · 남중국해 봉인 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물량 공세를 벌이면서 동남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우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22일 영상으로 개최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5년간 1천500억달러(약 178조 원) 상당의 농산물 수입, 3년간 15억달러(약 1조7천800억 원)의 개발원조, 1천개의 선진 응용 기술 제공, 청년 과학자 300명 방중 교류 등 '보따리'를 풀었다. 이번 정상회의 자체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던 이벤트였지만 마침 지난 16일(한국시간) 미·중 첫 영상 정상회담에서 양측간의 치열한 전략경쟁 관계가 재확인된 직후 이뤄진 행보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았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키스(AUKUS)가 다른 나라의 참여에 문을 열어난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망에 동남아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한편 서방의 동남아 경제 지원

구상에 맞서 '선수'를 치려는 중국의 구상이 읽혔다. 주요 7개국(G7)의 장관인 영국은 G7 외교개발장관회의(현지시간 12월10~12일·리버풀)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을 초대하겠다고 22일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미국 중심 서방의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동남아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3W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달러(약 4경7천496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6월 G7(미·영·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본격 소개됐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당시 G7의 설명이었는데 중국이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였다. 일대일로의 기치 하에 추진되는 중국의 금융 지원 정책이 개도국을 '빛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B3W는 일대일로와는 차별화한 방식의 인프라 지원 구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2월 동남아 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G7 회의가 열리려는 점에서 B3W의 1차 주요 공략 대상이 동남아일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 터에 중국은 이번 중-아세안 정상회의를 동남아 국가들을 일대일로의 협력자로 불러 두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G7이 동남아 국가들을 불러 B3W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아세안에 과감한 지원 구상을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고품질의 일대일로 건설", "일대일로 국제산업협력 시범구 건설" 등 총 3차례 일대일로를 거론하며 관련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또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존

재하는 남중국해에 대해 시 주석이 "남중국해의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남중국해 관련 갈등이 동남아와의 협력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중이 들어났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 미·중 지정

학적 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 동남아라고 보고 있다"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대 근린국 정책의 핵심이 됐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이번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이 일대일로를 무력화하려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아와의 기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나이키, '콘서트 참사' 트래비스 스콧 운동화 출시 무기한 연기

이달 초 콘서트서 압사사고로 10명 사망

글로벌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미국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 콜라보한 운동화 출시를 연기했다. 최근 스콧의 콘서트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에어 맥스 1X 쉐더스 잭' 운동화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당초 '나이키 X 트래비스 스콧 에어 맥스 270 쉐더스 잭'으로 불린 이 한정판 운동화를 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스콧의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날 해당 콘서트에서 다친 9살 소년이 끝내 숨을 거두면



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5일 텍사스주 휴스턴 야외무대에서 열린 스콧 콘서트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에는 5만 명의 관객이 입장했는데, 당시 무대 쪽으로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콧은 당시 콘서트에서 관객이 실신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공연을 계속 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스콧과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투데이]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고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PT. Pertama Logistic Service
(PT. Express MAXimum)

www.plsair.net

빠르게 보다 바르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업

PLS는 물류를 통해 세상을 잇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그 마음을 알기에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 잇습니다.

JL. Trocadero 107 Palais De Europe Lippo Karawaci
Kel. Penunggan Barat Cibodas Tangerang 15139 Indonesia

☎ 62-51-5579-7011 📠 FAX : 62-21-5576-7555
📠 62-812-8481-1116
✉ dhkim@plsair.net

꽤 오래된 사진을 본다. 1954년 미군이 찍은 사상구 패법동 일대 사진이다. 논인지 밭인지 널따란 초원을 가로질러 낙동강이 흐르고 강의 이쪽, 그러니까 사진 아래는 삼각형 지붕 공장이 여러 동 보인다. 공장 한쪽에는 굴뚝이 높다랗다. 한 시절, 사상지역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이던 신라고무공업사 전경이다.



▲ "1954년 미군이 찍은 사상구 일대 사진. 가운데 보이는 물줄기가 낙동강이고 아래 공장 건물이 신라고무다.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시대는 부산의 중심이 동래였다. 동래를 중심에 두고 동면, 서면, 남면, 북면으로 나뉘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면도 있었다. 당감동 동평면, 낙동강 사면이 그랬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 또한 커졌다. 인구가 늘고 집이 늘었다. 마을을 쪼개는 분면(分面)의 필요가 생겼다. 요즘으로 치면 분동(分洞)이었다. 1동, 2동으로 나누는 대신 상하(上下)로 나누었다. 동면은 동상면과 동하면으로, 서면은 서상면, 서하면으로 분면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너무 커져서 상하가 아닌 상중하(上中下) 셋으로 나뉘어야 할 면이 생겼다. 거기가 사면이었다. 사상면, 사중면, 사하면으로 나누었다.

신라고무는 잘나갔다. 신라고무가 얼마나 잘나갔는지는 상표에서 짐작된다. 상표는 '왕(王)' 이었다. 왕표 고무신과 운동화를 만들며 1950년대와 60년대 부산과 한국 신발산업을 견인했다. 가정사로 인해 1967년 폐업하고 이듬해 국제고무에 회사를 넘겨줄 때 부지가 자그마치 6만 9

통일산 시인의 신발 이바구⁵ 사상 신라고무 '왕(王)' 표 신발로 한국 신발 이끌어

천 평이었다. 20평이나 30평 정도는 몰라도 100평만 돼도 감이 안 잡히는 나 같은 소시민은 상상조차 안 되는 규모였다.

그런 만큼 창업주 박필희는 상공계 거두였다. 부산은 물론 한국에서 알아줬다. 두산그룹을 키운 선두기업인 동양백주가 피란지 부산에서 1952년 창업하자 이사로 참여했다. 두산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두산그룹 초대회장 박두병이 피란시절 박필희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광복 이후 최초의 민간은행 서울은행이 1959년 창립할 때도 발기인 겸 이사로 참여했다. 서울은행을 세운 개풍그룹 이정립 회장이 피란시절 집을 얻어 쓴 인연이 그렇게 이어졌다.

신라고무가 잘나가던 무렵 한국은 혼란기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이 위기였을 때 신라고무는 이를 기회로 이끌었다. 신발산업 전체가 그랬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발산업이 있었기에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나면서 한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거의 모든 분야가 위축됐다. 그 위기를 헤쳐나간 원동력이 신발산업이었고 신라고무를 비롯한 부산의 신발 기업이였다.

신라고무는 전쟁의 참화에서 불끈 일어섰다. 노동집약형 산업인 만큼 사상지역 극강의 고용을 창출했다. 몰려드는 피란민에게 일자리를 줬으며 피란민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대한 공급과 수요의 원동력이 됐다. 군화를 비롯한 훈련화 등의 군용 신발의 대량 생산은 다른 신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신라고무의 기반을 탄탄하게 했다. 군용 신발의 등장은 신발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기폭제였으며 고무신 일색의 신발을 다양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쟁이 끝나고서도 위기는 기회였다. 전쟁특수를 바라보고 우후죽순 생겨난 군소 신발업체들은 전쟁이 끝나자 후유증



▲ 1960년대 국제고무 작업 광경. 신라고무 자리에 국제고무가 들어섰고 그 자리에 현재 도소매 쇼핑몰 르네시떼가 있다.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을 앓았다. 재고 누적과 취약한 재무구조로 허덕였다. 산업 전체가 자칫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신발업계는 슬기롭게 대처했다. 신라고무 같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다. 난립하던 군소업체가 정리되자 신발산업은 새 시대로

나아갔다. 1962년 첫 수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일본과 기술 제휴, 베트남전쟁 특수 등으로 신발산업은 승승장구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최강의 신발로 나아가는 도약의 디딤돌은 이렇게 놓였고 그러한 디딤돌의 하나가 사상에 있던 신라고무였다.

나는 지금 육교에 있다. 낙동강 삼락생태공원과 도소매 쇼핑몰 르네시떼를 잇는 연륙교다. 신라고무 자리에 국제고무가 들어섰고 국제고무 자리에 르네시떼가 들어섰다. 부산진구와 동구는 고무신공장이 운집해 있던 곳. 신발 사업을 하려면 거기서 하는 게 어려우려도 편했다. 그런데도 거기가 아닌 낙동강 강변에서 제2의 창업을 한 박필희 사

장. 고향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고향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쳐 자수성가하겠다는 결기였다. 신라고무 창업주의 결기 같은 시퍼런 강바람이 연륙교 저 너머에서 불어댄다.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신발덕후’ MZ세대 파고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한정판 신발 거래 플랫폼 1위 업체인 ‘크림(KREAM)’ 과 손잡고 신가전 신발 관리기인 ‘슈드레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가 새 시장 카테고리를 열고 핵심 타깃인 MZ세대의 구매력을 끌어오기 위해 마니아 문화 마케팅을 전략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2월13일부터 크림과 두 번째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김정윤 작가의 작품도 제품에 각인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그는 나이키, 무신사, 코카콜라 등과의 협업으로 유명하다.

슈드레서는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에어드레서의 핵심기술인 ‘에어워시’를 통해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최병석 삼성전자 한국총괄 의류케어 파트장은 “슈드레서는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보니 신발을 아끼고 관심이 많은 마니아층의 초기구매율이 높았다”며 “크림은 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플랫폼이어서 출시 초기 신제품 바이럴(입소문)이 많이 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파트장은 “1차 때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특히 크림은 이용자 중 80% 이상이 2030세대로,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의 소비를 다양한 소셜 미

디어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의 강한 파급력이 특징인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7월 1차 협업 캠페인은 크림 로고가 각인된 한정판 슈드레서를 단 10명에게 증정하는 행사로 진행됐는데, 4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2차 캠페인에서는 이전의 10배 물량인 100대의 한정판 비스포크를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문화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주목했다.

기존 마케팅을 식상해하는 이들 세대의 특성에 맞춰 크림과 같은 신발 플랫폼은 물론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체험존 등 색다른



▲ 지난 7월 신발 거래 플랫폼인 크림의 오프라인 매장에 ‘크림’ 로고가 각인된 한정판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가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 제공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카시나, 아트모스, 프레드시갈, 케이스스터디 등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신발 편집샵 브랜드의 매장에 슈드레서를 배치했다.

취향에 맞는 미술 작품을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그림 렌탈 서비스 플랫폼인 오픈갤러리 고객을 대상으로도 슈드레

서를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하게 했다.

최 파트장은 “슈드레서는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MZ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운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러닝 슈즈계의 애플 ‘On’ 이 성장률1위인 이유



▲ On(온)의 ‘클라우드 붐(Cloudboom)’

미국과 일본의 러닝 슈즈 시장에서 성장률 1위를 획득한 브랜드가 있다. 바로 스위스의 ‘On’ 이다. 2010년에 설립된 이래 전세계의 러너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50개국 6000개 스포츠 라이터 사카이 마사토 씨는 “기능미와 멋진 디자인 때문에 ‘슈즈계 애플’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리드하고 있는 두꺼운 밑창 트렌드에도 참전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슈즈계의 애플, 스위스 브랜드인 On을 알고 있나?

나이키의 밑창이 두꺼운 슈즈가 주목을 끌고 있고 최근에는 ‘기어’ 로서의 러닝 슈즈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벨런스를 비롯해 일본 브랜드인 아시스와 미즈노까지 넣어 5대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해외의 많은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다.

두꺼운 밑창의 원조인 호카오네오네, 세계 최초로 제로 드롭(발끝과 발꿈치의 높낮이 차이가 없다)이라는 콘셉트를 탑재한 알트라, 미국의 러닝 슈즈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



율을 자랑하는 브룩스. 그 외에도 푸마, 언더아머, 리복, 씨코니, 뉴튼 등이 일본 러너의 ‘발’ 을 노리고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아시스, 뉴벨런스, 미즈노를 추격 일본 국내 러닝 슈즈 시장은 ‘서드 웨이브’ 가 도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스위스 브랜드다. 스위치 같은 디자인의 On(세로로 씹)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슈즈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10년에 설립된 On은 불과 10년만에 전세계 50개국에서 6000개 점포 이상 전개하는 등 급성장 중이며 일본에 상륙한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5년 전 도쿄 마라톤 EXPO에 출점했을 때는 3일 동안 16컬레박에 팔리지 않았지만 그 후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만 600개 점포에서 판매 중이다. 모 대형 스포츠 양판점에서의 러닝 슈즈 매출액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시스, 뉴벨런스, 미즈노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프리미엄(고가) 러닝 슈즈 시장의 경우 미

국과 일본에서 성장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On은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브랜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을 무시하고 기능미를 추구한다

On은 ‘러닝을 즐겁게 한다’ 를 목표로 슈즈 제작 경험에 없는 세 명의 스위스인이 설립했다. 브랜드명에는 ‘슈즈를 신으면 자신의 스위치가 들어간다’ 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로고는 스위치를 이미지화 했다. 슈즈 제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점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졌다.

절반으로 자른 물호스를 솔에 붙인 것이 세계 특허 기술인 ‘Clous Tec(클라우드 테크)’ 가 되었다. 호스가 찌그러져 쿠션 역할을 하며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반발력이 발생한다는 구조다.

클라우드 테크는 On의 제품 대부분에 도입되어 있으며 독특한 쿠션성과 반발성으로 ‘구름 위 달리기’ 를 많은 러너에게 제공해 왔다.

슈즈 회사는 매년 모델을 버전 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On은 다르다. 2012년에 등장한 ‘Cloud(클라우드)’ 는 기능적으로 한 번 업데이트되었지만 디자인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현재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남성용만 8컬러나 있다. 비비드 컬러는 적으며 채도가 낮은 색상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성숙한 컬러링이라고 할 수 있다.

On의 홍보 담당자는 “납득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해 개발했으므로 매년 업데이트하

지 않습니다. 1~2년 신어 헤어졌더라도 똑같은 슈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결과 클라우드는 세

계적으로 수백만명의 러너들이 착용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출처: president.jp

렉트라, ‘제로 버퍼’ 커팅 기술 솔루션 출시



자동 커팅 기술 제공업체인 렉트라(Lectra)가 운동화 산업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벡터 풋웨어 iP6(VectorFootwear iP6)’ 를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획기적인 커팅 장비와 특별하게 고안된 소모성 품목을 결합해 광범위한 운동용 풋웨어 소재를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커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상당량의 소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렉트라는 강조했다.

“1밀리미터의 버퍼 감소는 패브릭 낭비 1%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 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풋웨어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다이 프레스는 “풋웨어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디자인 요구” 를 관리하기에 필요한 속도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없지만, 디지털 생산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제조

업체들이 업계 최고의 풋웨어 브랜드의 선택을 받는 공급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렉트라는 덧붙였다.

렉트라의 연구 개발팀은 지난 3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헌신했고, 그 결과 벡터풋웨어 iP6가 탄생했다. 이 솔루션은 레이저 스캐너를 통합했으며 최고 높은 수준의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렉트라는 운동용 풋웨어 시장이 2025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앞서서 생활하는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렉트라의 셀린 쇼시(Celine Choussy) 최고제품책임자는 풋웨어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이 업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성심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Footwearbiz.com

공기순환 남성 골프화

미드솔의 공기순환 시스템으로발의 쾌적함과 발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폭신한 쿠션으로 무릎관절 보호가 됩니다 특히 천연 소가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출시 하였습니다.



Art : BCS 001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2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3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4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5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OPEN

LIPPO CIKARANG RUKO ROXY 에 BACAS AIR GOLF SHOES 매장 오픈

판매 품목

남성 : 골프화, 샌달
여성 : 신발, 단화, 샌달



CV. BACAS JAYA MAKMUR

주소 : Ruko Roxy Blok C No. 03, Jl. M. H. Thamrin Lippo Cikarang

Telp. Kantor : (021) 8990 7992

Contact Person, Kartika : 0812 8447 3931 Dhika : 0899 296 6527

리복, 지그 키네틱카 2 에지 출시... 고어텍스 및 비브람 밑창 사용



리복이 아웃도어 활동 애호가들을 위해 디자인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지그 키네틱카(Zig Kinetica) 프랜차이즈의 신상품, 리복 지그 키네틱카 2 에지 GTX(Reebok Zig Kinetica 2 Edge GTX)는 세련된 미드컷 스니커즈로 일상용 및 트레일용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이 아웃도어 디자인의 풋웨어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으며 비브람과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했다.

리복은 1994년 첫 출시한 친환경 화합물인 비브람 에코 스텝(Vibram Ecostep) 밑창

을 추가했다. 이 소재는 폐기물을 절감하고 원자재를 최소 30%가량 사용한다. 고어텍스의 경우, 리복은 발가락과 발 앞부분에 단열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인 인피니엄 써미엄(Infinium Thermium)을 활용했다.



리복 지그 키네틱카 2 에지 GTX에서 사용된 또 다른 소재로는 스티치 오버레이가 포함된 섬유층 어퍼와 고무화 그리드 프린트, 쿠셔닝과 안정성을 위해 지그 에너지 셸(Zig Energy Shells)과 결합한 플로트라이드 퓨얼(Float-ride Fuel) 중창, 발바닥의 플로트라이드 에너지(Floatride Energy) 쿠셔닝이 있다.

리복 지그 키네틱카 2 에지 GTX는 두 가지 색상, 다크브라운 및 블랙으로 이번 가을에 출시했으며, 160달러선이다.

리복은 지그 키네틱카 2 에지 GTX 출시 2주 후 아웃도어 활동 애호가를 위한 로우컷 지그 키네틱카 2 에지도 공개했다. 이 풋웨어는 비브람 에코 스텝 밑창을 사용했지만 고어텍스 단열재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130달러선이다.

아디다스가 인도네시아에 사과한 까닭은



아디다스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인도네시아 고유 문화를 말레이시아 문화 유산이라고 소개했다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취한 조치다.

17일 콤파란닷컴 등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10일 동남아시아 6개국의 문화 유산을 운동화에 각각 담은 '울트라부스트 시티 팩(City Pack)'을 선보였다.

이 중 말레이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운동화에는 그림자극 와양 쿨릿(wayang kulit)의 인형 그림을 새겼다.

아디다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이자 문화 유산인 와양 쿨릿의 요소를 현대적 색상과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와양 쿨릿은 말레이시아가 아

니라 인도네시아의 고유 문화 유산"이라는 것이다.

실제 와양 쿨릿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인 자바섬이 원산지

로 문화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 등지로 건너갔다.

유네스코는 2003년 와양 쿨릿을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 문화적으로 원조 논쟁을 이어온 양속으로 '동남아의 한일 관계'라 불릴 만하다.

결국 아디다스는 5일 만인 16일 공식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고 운동화 소개 글도 바꿨다.

아디다스는 "와양 쿨릿은 말레이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임을 강조해야 했다.

의도하지 않은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SINCE 1969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중유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p>	<p>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p>	
<p>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p>		

PT. YUSUNG JAYA ABADI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우포스

그 서막을 알리는 계기는 우포스의 슬리퍼와 플립플랩스 제품들이었다. 기존에는 리커버리 슬리퍼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우포스는 신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발에 감기고 편안하다며 갑탄사를 연발하는 기능성 슬리퍼다. 핵심기술은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할 때 사용하는 특



▲ 출처 : 29cm
수고무에서 발포해 만든 ‘우폼’이라는 소재다. 우포스 슬리퍼를 경험해 본 소비자들은 슬리퍼에 이어 리커버리 슈즈 제품들도 관심 갖기 시작했고 이에 우포스에서는 리커버리 신발 종류들도 라인

코로나19시대에 주목받는 리커버리 슈즈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예전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스크없이 외출을 한다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다. 실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패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전거 판매가 늘어나는 점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운동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신발산업에 있어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거대했다. 신발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봄, 가을 시점에 운동화의 판매는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따라 판매량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근거리의 간단한 산책이나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리커버리 슈즈 제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리커버리 슈즈 제품은 단순히 운동 후 피로회복을 위한 일부 소비자를 위한 영역이 아닌 4계절 내내 소비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제품 만족도가 충분하다면 가격이 높아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 여기 운동화보다 실내외 활용도가 높은 리커버리 슈즈 브랜드들을 살펴보자

업에 포함시키게 된다. 아직 슬리퍼와 플립플랩스 제품군에 비해서 슈즈 라인업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성고객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리커버리 슈즈 영역에 있어서도 우포스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고품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장에서 기존 효도 신발이라 일컬어지던 신발 영역의 한 축이 리커버리 슈즈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 여겨진다.

아키클래식
여기 국내 브랜드의 흐름도 주목해 볼 만하다. 10~20대



▲ 출처 : 아키클래식

소비자 팬을 확보하고 있는 아키클래식은 본격적으로 리커버리 운동화를 신발 카테고리에 추가해 놓고, 제품의 특징과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디자인 못지않게 메모리 테크인솔, 리커버리 폼 적용 등 리커버리 기능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중장년층이 편한 신발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여겨지지만, 운동량과 활동량을 고려할 때 젊은 고객층에게 가장 필요한 카테고리다. 기존 라이프스타일 계열은 기능성 보다는 디자인에 치중하다보니 착화감이나 쿠셔닝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함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디자인부터 편안함을 고려해서 설계하여 이를 경험해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편안함에 중독되어 재구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랜드 측에서도 제품을 설명할 때 주로 스포츠 활동이후 회복을 위한 신발로 소개하고 있지만, 일반 신발과 달리 착용감과 쿠션감이 뛰어나 지친 발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중성이 높은 제품이다.

스케처스

스케처스 하면 크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동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2,000년도 초중반에 가수 보아가 모델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매장이 많지 않다보니 글로벌 브랜드임에도 국내에서 스케처스를 모르는 소비자 층도 분명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동호회나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 스케처스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이들의 추천과 후기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특히나 여행길에 장시간 걸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스케처스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 것과 리커버리 슈즈를 검색할 때 노출되는 빈도를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스케처스는 분명 소비자들의 인식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상품력은 이미 뛰어나다. 제품 라인업에 있어서 맥스쿠셔닝 제품의 경우 초경량 인젝션 쿠셔닝이 주는 느낌은 중독성이 강해 자꾸만 걸고 싶게 만들어준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발걸음을 유도해주는 미드풋 스트라이트 주법은 경

쾌한 발걸음을 이끌어 준다. 이는 분명 스케처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당 리커버리 슈즈 영역에 있어 보다 많은 상품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리커버리 슈즈는 아직 특정 소비자들만 알고 있는 영역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리커버리 슈즈의 인기는 가파르게 수직곡선을 그리고 있어 몇 년 뒤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리커버리 슈즈를 검색목표로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리커버리 슈즈가 운동 후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영역의 편안함을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리커버리 슈즈의 착용은 이미 보편화 되어있다. 시장 규모가 크고 많은 브랜드가 포진



▲ 출처 : 스케처스코리아

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 시장을 선점하는 브랜드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리커버리 슈즈는 슬리퍼와 플립플랩스 제품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에서 신발 영역까지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신발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야 한다. 마치 전기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에 내연기관만 고집한다면 이후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한국건강원

Bawang Merah
최고의 건강 선물
Rp. 600,000 60팩/Box

양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건강선물!!!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지방 함량이 적고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시 복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소주 흑염소 생사탕 자라탕 녹용탕 장어즙 붕어즙 십전대보탕 킹코부라탕 빨강양파즙 포도즙 사과즙 양배추 배도라지 호박즙 비아그라 씨알라스 웅담 저담 사담 여주즙

이슬브 증류액

고려인삼

전 제품 BPOM, HALAL 등 현지 유통법규를 준수하여 수입, 통관된 우수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고려홍삼 농축액 시리즈 전 제품 특별할인 판매 실시
(2021년 10월 1일부터 / 전 제품 소핑백을 함께 증정합니다)

<p>홍삼농축액 플러스 30g (Rp 380,000) 240g (Rp 1,980,000)</p>	<p>홍삼농축액 120g (Rp 980,000) 240g (Rp 1,800,000)</p>	<p>홍삼정 240g (Rp 880,000)</p>
--	---	---

홍삼캔 (뿌리삼) Korean Red Ginseng)
홍정원 Hong Jung Won
사포니엑스 Saponiex
지맥스롱 G-MaxLong
고려인삼차 Korean Ginseng Tea
고려홍삼차 Korean Red Ginseng Tea
고려홍삼정차 Korean Red Ginseng Tea
지드링크 G-Drink

Add: Ruko Barcelona No.5, Jl. Palem Raya, Palem Semi Karawaci Tangerang, Indonesia

T. 021-5572-8882

E. hijunjkt@hanmail.net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드립니다

주문 상담 Hp. 0811-92-3200

고려인삼 공식 대리점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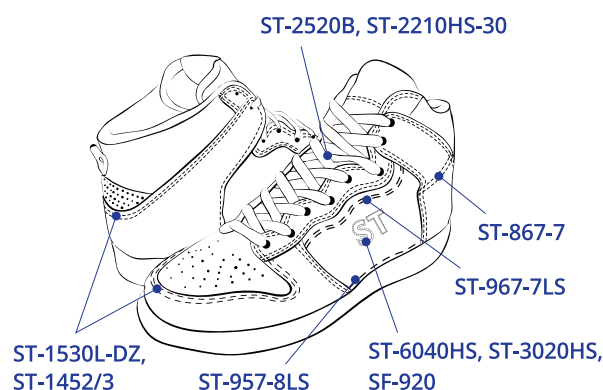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